



사회봉사로 회원단합을 이룬 부천시지부

## 나눔이 있어 더욱 행복한 부천의 일꾼들

가장가까이 뻗어 있는 강줄기가 모여 커다란 바다를 이루듯 전국의 지회지부가 모여 (사)대한제과협회를 구성하고 있다.

〈베이커리〉는 전국 지회지부의 왕성한 활동을 소개하기 위해 ‘지회지부 탐방’을 마련했다.

이번 호에서는 그 여섯 번째 만남으로 사회봉사를 통해 회원간의 단합을 이루고 있는 부천시지부를 찾았다.

글 · 김영주 기자 | 사진 · 전문식

지난 5월 12일, 부천에 위치한 한 복지 단체인 새소망의 집에서는 내리는 비 사이로 고소한 빵 내음이 솔솔 풍겼다.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다. 오늘이 바로 맛있는 빵을 주는 빵 아저씨들이 오는 날이기 때문이다.

빵 내음이 소록소록 풍겨나오는 곳은 식당 옆에 위치한 자그마한 공장. 그 곳에서 부천시지부 임원들이 묵묵히 빵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한쪽에서는 반죽에 단팥을 넣는 일에 열심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보루 반죽을 묻히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빵을 만들던 한 사람이 ‘가게에서 팔 때 보다 재료를 더 많이 넣는다’고 말하자 모두들 고개를 끄덕거리며 웃음을 터뜨린다. 노릇노릇 잘 익은 빵이 오븐에서 나오고 아이들이 들고 있는 바구니가 빵으로 가득 채워지면 아이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차곡차곡 채워진다.



조성영 지부장

#### 4년 동안 만든 빵만 2만6천 개

부천시지부가 매달 아이들을 위해 빵을 만들기 시작한지 벌써 4년이 넘었다. 지난 2000년 새소망의 집에 연관업체의 도움과 회원들의 힘을 모아 작은 공장을 마련한 부천시지부는 오븐 하나, 발효기 하나, 작업대가 전부인 이곳을 사랑을 굽는 소중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4년 전 지부장이었던 김정인 고문이 봉사를 시작한 이후 지금의 조성영 지부장에 이르기까지 부천시지부는 단 한번도 쉬없이 이곳을 방문했다. 조성영 지부장은 빵을 그냥 전달하는 것과 공장을 마련해 빵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한다.

“우리가 가진 기술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 회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다가 사회봉사와 함께 꿈많은 아이들에게 제과일에 대한 동경을 심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원들 모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합심하여 공장을 마련하는데 발벗고 나섰고,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으로 제과일을 배우러 온 아이들도 있어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매달 이곳에서 만들어내는 빵은 550여 개. 여기에 매달 전달하는 생일케이크 15개까지 합치면 시중 가격으로 70만 원 정도 되는 적잖은 수량이다. 이중에 350개는 새소망의 집 원생들에게 전해지고 나머지 200개는 가지런히 포장해 오정구 사회복지과에 전달, 결식아동과 무의탁 노인들의 소중한 간식이 되고 있다.

####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해 이루는 단합

빵을 만드는 일은 부천시지부의 이사들 몫이다. 매달 이사들이 여러 명씩 조를 이루어 전담한다. 빵을 만드는 재료비는 부천시지부에서 지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작업에 참여한 이사들이 자신의 가게에서 부족한 재료를 가져오기 일쑤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언제나 아낌없이 내놓는다.

매달 빵을 만드는 날이 되면 당번 이사 이외에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작은 공장으로 모여든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빵을 나르거나 공장을 정리하는 등 묵묵히 일을 돕는다. 서로 말 안해도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맞는 부천시지부 사람들이다.

조성영 지부장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집행부가 있어 부천시지부의 단합이 이어진다고 칭찬하느라 바쁘다.

“지부 살림을 이끌고 있는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야 회원들의 참여도 높아집니다. 우리 지부는 무슨 일을 하든 집행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하고 가장 나중까지 하려고 노력합니다.”

30여 명의 집행부가 협회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팔 걷고 나서는 모습에 회원들의 참여율 역시 높다. 지역 봉사도 시작은 집행부에서 했지만 이제는 각 제과점마다 봉투 값을 모으는 모금함을 마련해 연말에 불우이웃돕기에 쓴다. 부천시지부는 제과회관 건립 모금에도 집행부부터 먼저 참여할 예정이다.

부천시지부는 더 나아가 회원들을 위한 포장 세미나, 기술 세미나 등 다양한 세미나와 회원들의 세무관련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회원들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회원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부를 만들려고 한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며 오늘도 열심히 뛰는 조성영 지부장과 임원들, 그 집행부를 믿고 함께 동참하는 회원들. 서로를 생각하는 깊은 마음으로 뚝뚝 뚝친 부천시지부는 나눔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얻는다. ㉔



1. 새소망의 집에 연관업체와 회원들이 합심해 마련한 소중한 공장.
2. 부천시지부의 정성으로 만든 소보ろ빵.
3. 오븐에서 빵이 나오면 바구니에 담아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4. 빵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의 모습.
5. 부천시지부 살림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유병연 이사, 김면기 부지부장, 고영곤 부지부장, 김영주 이사, 양희춘 부지부장, 강장원 이사, 박병준 이사, 김영완 감사, 이은영 이사회위원장, 이기만 이사회위원장, 강대석 총무이사, 정태현 이사회위원장, 조성영 지부장, 정국섭 이사 (사진뒷쪽 맨왼쪽부터 시계방향).